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하라

교황 “인종차별은 ‘숨어 있는 바이러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종차별을 맹비난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지난 21일 트위터에서 인종차별을 “빨리 변이하고, 사라지는 대신 숨어 있는 바이러스”에 비유했다.

교황은 “인종차별 사례는 우리를 계속 부끄럽게 한다.”며 “그것들은 이른바 우리 사회의 진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재하거나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황이 트위터에서 인종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나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간 이주민을 포함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왔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로 시민 69명이 숨진 사건에서 유래했으며, 유엔이 1966년 공식 기념일로 선포했다.

특별 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를 3월 29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이 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개최한다. 시간은 3월 29일~4월 2일은 오전 5시 30분, 마지막 날인 4월 3일은 오전 6시부터이다.

한기홍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새벽부흥회를 이끈다. 이 행사는 은혜한인교회 홈페이지(www.gracemi.com)를 통해서도 중계된다.

한편 옐리카카운티 교회연합회는 오는 4월 4일 오전 5시 30분부터 은혜한인교회 비전 본당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린다.

▶ 문의: (714) 446-6200

불자들에게 ‘불교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불교를 공부했다고 하는 불자들에게도 쉽고 어려운 것이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한 마디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불자들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불교의 궁극에 이르는 길은 수십 갈래, 수백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 하나하나를 선택해가는 불자들에게는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최선의 길일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분 자신이 행하는 수행법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 경험에 비추어 제가 행하고 있는 불교의 수행법과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초심자들은 수행을 시작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런 생각들 속에서도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초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찾아 나서야 하며, 부단히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의 실체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많은 부딪침과 실천을 통해 도의 길에 들어서도록 자신을 담금질 해야합니다.

수행자는 고정된 마음보다 변화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곤충에서 나비가 되듯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근기에 가장 맞고 수행하기 좋은 수행법이 바로 관음주송입니다. 관음주송은 외면의 세계를 내면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좋은 수행법입니다. 관음주송은 왜 해야 할까요? 관음주송은 다른 수행법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관음기도를 해서 많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한 내용이 실린 책을 읽은 일이 있었습니다. 병어리가 관음보살을 자주 불러 입이 떨어졌다고 하는 신비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병어리 되는 분이 얼마나 지극 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찾았을까 생각하니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관음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관음보살님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불러야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변음이 나올 때도 자신의 변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한 마음으로 웅얼거릿듯 부르다 보면 나중에는 변음 내용을 자신이 못 알아 듣는 경우가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또박또박 정성껏 관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그렇다고 변음이 나와야 좋은 기도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변음이 나오지 않아도 지혜를 얻는데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깨달았다 하지 않습니다. 높은 도에 이른 사람은 스스로 높은 도에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는 행동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옳은 수행자며 깨달은 이입니다.

초심자들은 관음보살을 부를 때 간절히 생각하고 염하고 불러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바른 음성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불러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보살의 위신력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라는 개념을 비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자신을 잊고 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나라는 집착과 욕심이 있다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다, 기력이 없다, 힘이 없다, 몸이 불편하다는 생각보다 오늘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 스스로 마음을 운전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보자일 때 모든 것이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재미가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숙할 때는 쉽고 편해지면서 참다운 불법의 세계에 들게 될 것입니다.

관음정진을 하게 되면 얼굴과 음성, 소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화내고 성내던 마음이 업장이 물에 녹듯 없어져 버립니다. 부처님 좋은 법이 좋은 인연을 만나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불자 여러분, 불법이 아니면 참다운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실되게 관음정진을 하게 되면 외면과 내면의 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무지했던 과거의 행위와 행동들이 지혜롭게 올바르게 변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무광 스님-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 모집 인원 풀타임 디자이너 1명
- 제출 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각 1부
- 서류 제출 방법 info@townnewsusa.com 이메일 제출
- 기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일정은 개인별 통보함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404-0027 (Rosecrans Ave + Valley View Ave)